

1

미래란?



미라

건조되어 썩지 않은 채로 말라서 보존된 시체



화학물 또는 흡거나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와 살이 말라서 보존된 시체

포르투갈어 mirra

미라,
미이라,
목내이

→ 미라의 각 나라말 표기

한국	미라	스페인어	momia
영어	mummy	러시아어	мумия
프랑스	momie	중국어	木乃伊
독일어	Mumie	일본어	ミイラ

자연적인 것
(건조한 기후)

의도적인 것
(내장 제거 후 방부제 처리)

→ 죽은 자는 언젠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존



현재 미라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 과거에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통해 화석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 질병이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조상들의 의료기록**
- 선조들의 **생활양식** 등을 유추

1 의도적

- ✓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불멸사상에 따라 시신에는 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미라제작
 - 아즈텍, 잉카 등에서도 미라화 의식
- ✓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미라들 “**회곽묘**”
 -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석관사용으로 완전히 봉인된 환경 제공
- ✓ **현대**에는 구)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져 보존
 -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호찌민,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

2 자연적

알프스 산맥의 빙하에서 발견된
'외치'(Oetzi)

- ✓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안데스 산맥에서는 잉카시대 산에 제물로 바쳐진 미라들이 발견
- ✓ '친초로미라'라는 박제와 인형의 중간 형태를 지닌 미라들

북유럽,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 ➡ '보그피플'이라는 미라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높이나 습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 ➡ 1948년 영국 체셔 주의 린도에서 발견된 린도 맨



19세기 유럽

- ✓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이미 이집트 문화 및 미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
- ✓ 1833년 : Thomas Pettigrew에 의한 이집트 미라의 부검 (mummy autopsy)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행

이집트 여행에서 경탄

“모든 풍습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시체를 화장한 **그리스** 사람들

시체에 생명의 모습을 주려는 **이집트** 사람들

1 이집트 미라의 유럽 전파

15세기

- ✓ 15세기에 나일강 유역을 탐험했던 최초의 유럽인들이 발견한 많은 경이 중 하나
- ✓ 미라와 석관을 구입하는 유럽인들
- ✓ 귀족들은 집을 이집트 식으로 장식, 파티장 가운데 미라를 놓는 게 유행

16세기

- ✓ ‘무미야’로 알려진 파우더 바른 미라가 만병통치약으로 등장

1 이집트 미라의 유럽 전파

15세기

- ✓ 15세기에 나일강 유역을 탐험했던 최초의 유럽인들이 발견한 많은 경이 중 하나
- ✓ 미라와 석관을 구입하는 유럽인들
- ✓ 귀족들은 집을 이집트 식으로 장식, 파티장 가운데 미라를 놓는 게 유행

16세기

- ✓ ‘무미야’로 알려진 파우더 바른 미라가 만병통치약으로 등장

가벼운 감기나 두통 뿐 아니라,
피부에 난 상처에도 바르고
여러 심각한 질병에 두루 사용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시리아 원정

- ✓ 영국 본국과 인도 식민지,
또한 인도와 지중해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음
- ✓ 인도의 식민지 탈취와
연결된 전략적 군사행동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시리아 원정

- ✓ 300년간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은 이집트
- ✓ 24로 나뉜 주를 지배하는 맘루크의 유력자 파샤가 사실상 좌지우지

노예 전사로 이집트로 데려 온 용병이었지만,
토착하여 이집트 원주민을 지배

- ✓ 이집트의 민중을 해방시키고, 우방인 오스만 제국의 정통적인 지배를 돕는다는 명분

이집트의 기념물, 동물, 식물 등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여 1809년과 1822년 사이에 “**이집트지**” 책을 출간

1 이집트 미라의 유럽 전파

1822년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했다고 선언

- ✓ 고대이집트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가 유럽의 장식예술, 건축, 내부장식 등에 등장하기 시작
- ✓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소장품은 이집트 공예품의 수집으로 더욱 풍성
- ✓ 고대 유적에 대한 약탈이 더욱 심화



이집트 고대유물이 개인 소장가들의 기증으로
여러 박물관에 집결

1 이집트 미라의 유럽 전파

- ✓ 보석과 부적만을 안중에 둔 도굴꾼들은 미라를 분해해 버리거나 심한 경우 아예 박살을 내버림



19세기에는 미라의 붕대를
해체하는 공식 집회

- ✓ 유일한 관심사는 귀중품의 수거
- ✓ 미라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 : 과학적인 우아함을 위한 것

1881년

마스페로와 동료 고고학자들은
동굴 안에 있는 **파라오의 미라들**을 발견

- ✓ 파라오의 미라 옆에는 파라오만이 잡아당길 수 있는 활이
부장되어 있었음
- ✓ 데이르 엘바하리 동굴에 있는 모든 유물을 카이로 근처에 있는
블라크 박물관으로 이동

“ 왕의 미라가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발굴된 **최초의 왕릉** ”



데이르 엘바하리의
하트셉수트 신전

“ 깎아지른 듯한 암벽
밑에 위치한
데이르 엘바하리 신전! ”

- ✓ 왕릉과 매장지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
- ✓ 20세기 초 사카라에 있는 왕들의 계곡, 아비도스, 누비아 등의 대규모 매장지와 부차적인 매장지들도 모두 발굴
- ✓ 많은 유물과 인간 및 동물의 미라들이 모두 세상에 나오게 된 것

투탕카멘의 왕릉

✓ 이집트학자인 하워드 카터에 의해
1922년 11월 4일 발견

→ 비밀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해 동안 왕들의 계곡을
계속 탐사

✓ 람세스 2세 같은 강력한 왕의 부장품



Tutankhamun

무덤의 발굴 및 연구

- ✓ 거대한 유적지 사카라에서, 신왕국시대의 고관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을 발굴
- ✓ 테베지역, 서부사막의 오아시스 지역, 중부 이집트, 파이움, 나일 삼각주 등에서도 발굴작업을 통해 미라 발견

미라를 연구하는 팀들은 여러 방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학제간, 통합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

상형문자(hieroglyph)

사물을 상징화시켜 그 사물이나 그것과
관련 있는 개념을 나타내는 문자

- ✓ 고대 : 그리스인들은 신성문자(hieroglyph)
- ✓ 로마시대 : 왕의 업적이나 신과 사후세계에 관한 내용을 신전이나 묘지의 벽면 또는 기둥에 조각하는 형식으로 사용
 - ➡ 대표적인 상형문자 :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문자와 초기의 한자(漢字)
- ✓ 1822년 프랑스의 샹폴리옹 :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



죽은 사람은 사후 세계인 '오시리스의 왕국'으로 여행

✓ 여행을 하는 동안 마실 물과 음식도 필요하고, 몸이 온전하고 튼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죽은 후에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던 것

파라오를 미라로 만드는 일

- ➡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살아 있는 신
- ➡ 파라오와 사후 세계를 연결하는 마법의 끈이 끊어진다면,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
- ➡ 향신료, 황금, 보석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선물들도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속에 함께 넣었음

2 피라미드의 발전과 미래

1 이집트의 묘제 양식

BC 3100 년 이전인
선왕조시대

- ✓ 사람이 죽으면 사막에 구덩이를 파고 매장
- ✓ 모래 속에 묻힌 시체는 원형 그대로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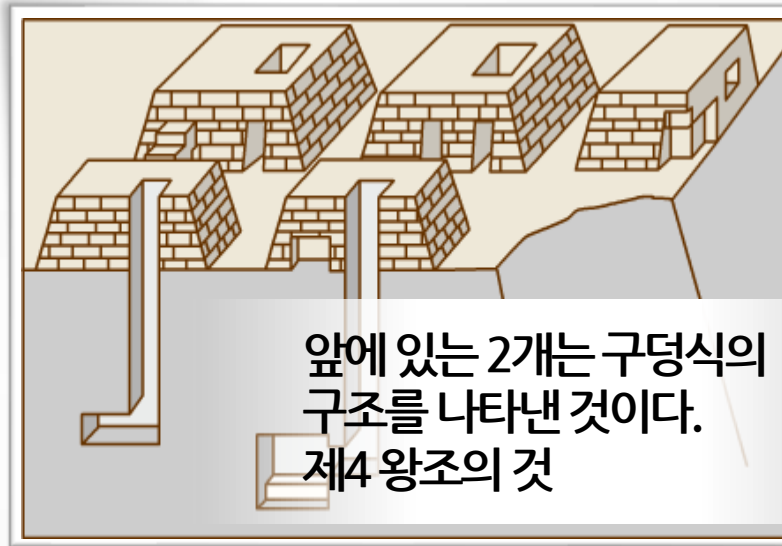
“ 더 잘 보존하고 싶은 욕망에 편승하여
더욱 정교한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 ”

파라오나 고관이 사망한 경우

- ✓ 부장품도 넣을 현실과 제물을 바칠 봉헌실

1 이집트의 묘제 양식

마스타바 Surviving Mastaba



각종 진귀한 물건을 마스타바에 넣는 장례 풍습

1 이집트의 묘제 양식

고왕국 시대의 계단식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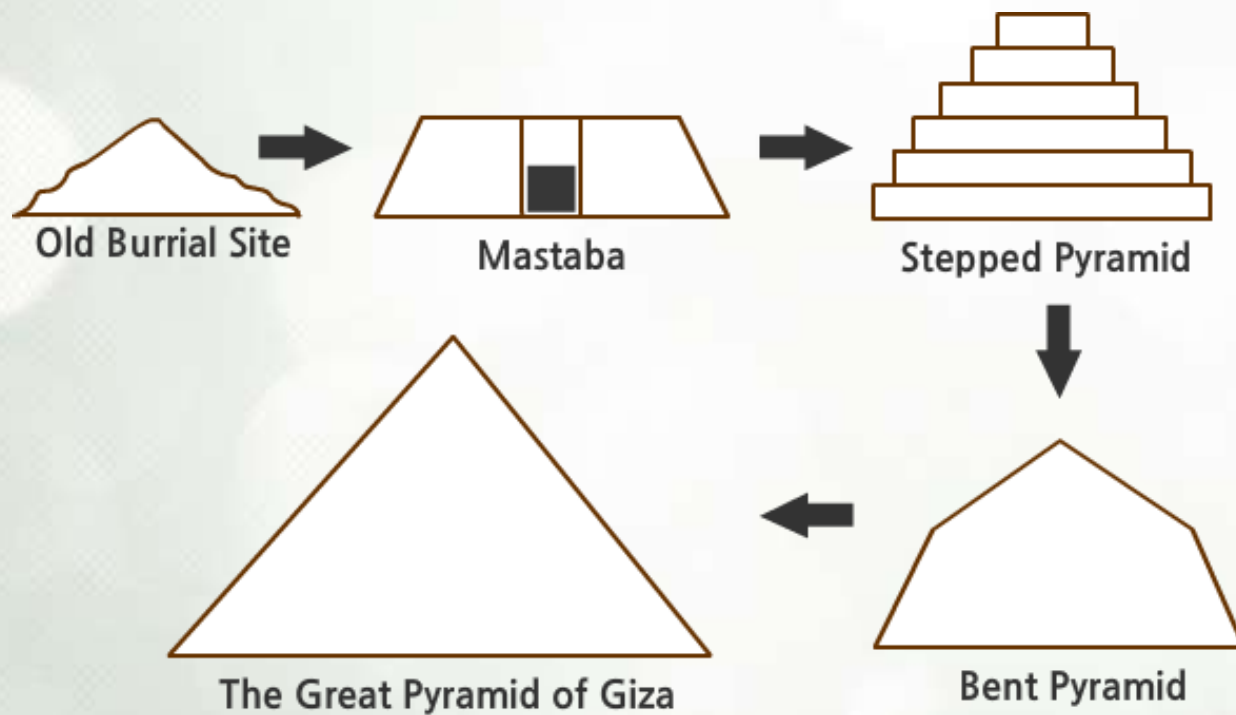


태양신 Ra에게 돌아가는 통로

고왕국 시대 도우저 왕 시절에
건축가 임호텍이 장례지구 Funerary district 프로젝트

1 이집트의 묘제 양식

이집트 왕조의 피라미드 변천



사체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미라제작 기술

✓ 미라제작은 BC 300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미라 처리 기술이 완성된 것은 BC 1000년 전

↪ 복잡한 기술을 터득하는 데에는 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가 필요

공기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시체를
천으로 감는 방법



3왕조 말에는 방부처리사들
은 사체의 내장을 들어내어
캐노픽 단지에 보관

2 미라제작 기술

호루스의 네 아들 : 캐노픽 단지

- ✓ 장례에 관련하여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신들로 표현
- ✓ 각각의 장기를 담는 용기로 사용
- ✓ 각각은 방위를 담당
- ✓ 형태는 미라의 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머리로 표현
- ✓ 각각은 여신들을
보호신으로 가짐



2 미라제작 기술

Hapy Imseti Horus
Duamutef Kebhsenuf



하피(Hapy)로
원숭이의 머리로
허파를 보호하며,
이시스가 보호신

두아무테프
(Duamutef)로
자칼의 머리로 위장을
보호하며, 네이트가
보호신

케브세누프
(Kebhsenuf)로
매의 머리로 창자를
보호하며, 셀케트가
보호신

임세티(Imseti)로
파피루스모양의 모자
또는 보통의 머리로
간을 보호하며,
네프티스가
보호신

✓ 동물들, 네 명의 보호여신도
장기 보관용기로 사용

2 피라미드의 발전과 미래

2 미라제작 기술

방부처리사는 탈수효과가 뛰어난 탄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의 결합체인 **소다석**을 사용

- ✓ 소다석을 써서 탈수를 하고 내장을 들어내는 방법은 곧 널리 쓰이기 시작
- ✓ 값싸게 방부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
 - 천 대신 모래를 사용
 - 병졸들의 미라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을 발견
- ✓ 방부처리 과정에 생긴 부산물은 모두 사체 옆에 함께 둠

방부처리기술을 이용한 미래 처리 과정을 기술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

- ➡ 초상이 나고 2~3일이 지나면 시체는 방부처리사에게 전달
- ➡ 즉시 왼쪽 갈비뼈 밑에 구멍을 내고 내장을 모두 들어냄
(간 → 위 → 창자 → 폐 순서로)
- ➡ 심장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꺼내지 않음
- ➡ 콩팥, 지라, 방광, 여성의 생식기 등은 중요하지 않아 처리하지 않음

방부처리기술을 이용한 미래 처리 과정을 기술 디오도루스 시쿨루스 -

- ➡ 왼쪽 콧구멍에 청동 꼬챙이를 쏘서 넣어 벌집뼈(ethmoid bone)를 부수고는 그 구멍을 통해 뇌수를 꺼냄
- ➡ 송진을 머리뼈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송진은 두개골과 접촉하는 순간 굳어지게 됨
- ➡ 시체를 봉합하고 깨끗이 씻어 소다석을 발라 탈수
- ➡ 시체를 나일강 물에 씻고 각종 연고로 닦아 내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함
- ➡ 시체를 사자 모양의 장례침대에 올려놓고 옷을 입힘

붕대처리 과정

성스러운 책에 규정된 엄격한 의식대로
집행되었고,
단계별로 입회사제가 의식용 주문



- ✓ 양팔은 옆구리에 가지런히 붙이거나 아니면 가슴 위에 X 자로 놓았고, 머리는 맨 나중에 묶었음
 - ➔ 붕대에는 가끔 송진을 발랐고 붕대의 겹겹마다 부적을 집어넣음
- ✓ 입관을 하여 장례식을 준비중인 유가족에게 보내짐

2 피라미드의 발전과 미래

3 성소

✓ 최초의 미래들은 공동묘지 근처의 텐트나 가건물에서 처리



벽돌로 지은 영구 건물로 변화

와브트
(성소)

페르 네페르
(아름다운 집)

➡ 방부처리의 목적 : 죽은 자를 정화하고 신성화

미래 처리를 해주면 죽은 자가
명계의 신인 오시리스가 될 것이라고 믿었음

3 성소

방부처리사

↪ 철저한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

미래 처리의
신인 아누비스를
상징하는 재칼의
가면

비의주관자

독경사제

필요한 주문을
외웠고, 각 단계별
기술책임자를
감독

“ 방부처리 과정 중
종교의식을 관장 ”

방부처리사

- ✓ 서기관이라는 사제 : 시체의 일부를 잘라내기 위해 줄을 긋는 일
- ✓ 파라시스트(잘라내는 사람) : 내장을 꺼내기 위해 부싯돌이나 흑요석 칼로 몸에 구멍을 뚫었음
- ✓ 타리체우테스(방부처리사) : 소다석을 사용하여 시체를 탈수시키는 것

다른 기술자들은 미래의 수송과 매장을 맡았고,
장례식과 그 뒤의 봉헌의식은 지정된 사제들이 집전

방부처리소의 각종 기술자들

- ✓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직위는 팔거나 후손, 제삼자에게 세습 가능
- ✓ 특정 마을이나 읍의 일정 인구에 대하여 독점적인 영업권
 - 공동묘지는 세력권에 따라 구분
 - 시체처리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시비
- ✓ 유가족들에게 물건으로 보수를 받았으나, BC 700년 이후에는 돈으로 받는 것이 가능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였음

미라는 각종 보호 용기 속에 안치

↪ 사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정교함

✓ 가장 바깥에 있는 용기는 왕이나 고관의 경우에는 석관이었고, 대부분은 목관

→ 석관의 형태는 직사각형이거나 인체의 윤곽

→ 의식적 주문, 신화적 장면, 개인적 상황 등

✓ 22왕조(BC 945년 경) : 목관은 아마포나 파피루스를
회반죽이나 풀로 굳힌 관재로 대체

2 피라미드의 발전과 미래

4 미래의 관

- ✓ 관재는 황금 장식으로 찬란하게 채색
 - 시신의 윤곽을 알아볼 수가 없었으나, 얼굴 부분은 가발
- ✓ 파라오와 부유한 개인의 미래는 제 3의 관을 소유
 - 파라오 : 견고한 황금가면
- ✓ 맨 마지막으로 수의와 봉대에 감긴 미래



Tutankhamun

2 피라미드의 발전과 미래

4 미래의 관

- ✓ 부유한 자만이 목관과 관재 사용 가능
- ✓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생략한 채 수의와 봉대에 묶여 매장
- ✓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 처리조차 하지 않았음

사후의 세계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100만년
동안의 거처인 무덤에 들어갈 상태가 되는 것

➡ 죽은 자는 관문 : 이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공격성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